

□ 캠퍼스 공원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사범대에서 바라본 학교의 전경. 만개한 벚꽃으로 마치 한폭의 수채화 같다



## 4월의 경희,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

지금 캠퍼스는 서둘러 터뜨린 꽃망울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일간에서는 이리다가 학교가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도 일고 있다

하늘이 벚꽃으로 뒤덮였다. 따뜻한 봄비가 캠퍼스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난 뒤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온 캠퍼스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다. 학생들은 본관 앞의 청량한 분수대와 화려한 벚꽃나무 숲 뒤로 보이는 대강당을 배경으로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서 강의가 없는 시간마다 벚꽃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주한미군의 관광코스 중 하나였으며, 일간지에서는 윤중로, 잠실주공5단지과 함께 서울 최대 벚꽃명소 중 한 곳으로 주목할만큼 경화벚꽃의 아름다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멀리 지방

에서까지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소풍을 오기도 하고, 가깝게는 회기동 주민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밤에 산책을 하는 등 해마다 이맘때 쯤의 유동 인구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는 우리학교 동문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의료원에 진료하러 온 사람들도 벚꽃의 풍경에 반해 잠시 들렀다 가기도 한다.

계다가 올해는 학교차원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를 학교개방기간으로 선정, 여러 가지 이벤트도 구상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이 기간에는 대운동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대학의소리 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음악과 질서 의식 안내방송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이번과 같이 다행스럽게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밖에 일부 물지각한 시민들의 음주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주차구역을 지키지 않고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는 등의 폐단도 간혹 눈에 띄고 있다.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저녁 늦게까지 들리는 경비원 아저씨의 호루라기 소리와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적잖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캠퍼스의 외부 공개를 휴일로 제한하지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폐쇄하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학이 더 이상 구성원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성까지 고려한다면 캠퍼스 개방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크다. 다만 대학이 일반 휴양시설과 분명히 다른 만큼 지나친 공원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주간에도 규제를 실시한다든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규제를 배제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휴일에도 매점을 개방하고, 화장실 안내판을 설치해 우리학교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도 갖추어야겠다.

서로간에 기본적 에티켓만 갖추어준다면 대학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월등히 좋은 시설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 본연의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휴양과 외부인들을 위한 사회봉사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 캠퍼스의 눈부신 벚꽃이 그 아름다움을 더하게 될 것이다. (김현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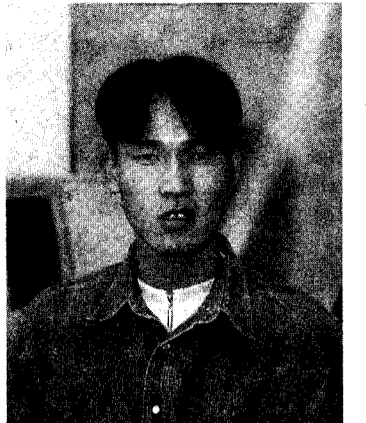


▲ 신선이 거닐었다는 전설속의 정원처럼 꽃과, 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선동호

□ 인터뷰 - 규철대 상황관리자 김선호(사학 92)군

### 밤의 학교는 안전의 사각지대

벚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와 봄을 만끽한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학교의 밤풍경은 낮과 사뭇 다르다. 학내에서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연인끼리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바람직한 학내 풍경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규철대를 찾아가 밤사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토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찰이 있었고, 규철대 한명은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폭력적인 문제이외에 야간에는 연인간에 지나친 애정표현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사범대를 올라가는 길옆이나 대운동장 그리고 본관 뒤가 연인들의 유평터가 되어가고 있다.

규철대의 활동인원과 주요업무는 현재 30명의 학생이 3일에 한번씩 규철을 한다. 따라서 하루에 10명이 규철을 하게된다. 밤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2개조로 나누어 대강당과 본관, 선동호를 중심으로 규철을 하며, 11시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 2명씩 조를 짜 학내 구석구석을 규철한다.

야간 규철시 가장 많은 적발사례는 대부분 남자 고등학생들이 문제다. 이들은 우리학교 주변이 '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러와다가, 야간에 교내로 들어와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는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한다. 지난 가을에는 대운동장에서 고등학생끼리 패싸움을 한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취해있던 터라 모든 규철대가 동원돼 그들을 내 쫓느라 애를 먹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들과 물리적인 마

야간 학내 치안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물론 학교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면학분위 조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야간규철시 발생한다. 전 반적으로 학교 조명시설이 부족하며, 조명이 있다해도 밝기가 어두워 규철이 어렵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비행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교내가 치안의 사각지대'라고까지 불리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조명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현일 기자)

□ 잠깐 인터뷰 - 회기동 주민 송미희씨

### "캠퍼스를 걷다보면 마음까지 상쾌해져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라며 말을 꺼내는 송미희(회기동)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학교 동문이라고 한다. 이때쯤 학교에 가보면 멋진 것이라든 남편의 제안에 유모차 속의 아기와 친정 어머니를 동행해 벚꽃 구경을 나왔다고한다. 송씨는 "학교라고 해서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죠. 단지 학생들을 위해 시간의 제한을 두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할 후 아기와 함께 멋진 포즈를 취해 주었다. (고세희 기자)

# 815만세! 콜라독립만세!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세계 제1의 콜라와 싸워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25년간 콜라를 만들어왔는데  
우리는 가진게 아무 것도 없다. 돈도, 명성도, 기발만한 든든한 계열사도  
오직 가진 게 있다면 세계 제1의 콜라를 만들어온 노하우뿐.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한다. 우리 콜라를 만들자  
맛만 뛰어나다면 우리 콜라라고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 콜라도 맛있어,  
몇백억벌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세계적인 콜라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름은 815다. 콜라도 이제 독립하자는 의미에서 815다  
815만세! 대한민국콜라 만세!

815 콜라독립군 모집  
조금 있으면 대학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축제기간중 우리나라 콜라 815의 홍보요원이 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축제를 멋진 파트너보다는 우리나라 콜라 815와 함께 지낼 분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응모해 주십시오  
http://www.bumyang.co.kr

25년간 콜라를 만들어온  
범양식품(주)